



Max News

Contact us

- | | | |
|--------------------------------------|------------------|------------------|
| - 영업팀 메일: E) sales.kr@maxlogis.com | | |
| - 김민호 이사: E) mike.kim@maxlogis.com | H) 010-2988-6309 | T) 070-5096-9367 |
| - 장명수 차장: E) simon.jang@maxlogis.com | H) 010-4437-5175 | T) 070-5096-9387 |
| - 조재범 과장: E) jay.cho@maxlogis.com | H) 010-4453-1114 | T) 070-5096-9442 |
| - 김현미 대리: E) sienna.kim@maxlogis.com | H) 010-9924-2772 | T) 070-5096-9124 |

서울

인천공항 창고 이전 안내

- 2024년 01월 08일 부터 고객사의 만족도 제고 및 효과적인 창고 운영을 위한 신주소지로 이전
- 고객사에 대하여 변함없는 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창고 작업 환경 개선을 기대

- 이 하 -

페사는 원활한 물동량 관리 및 창고 운영 확장의 차원에서 2024년 01월 08일부로 하기와 같이 공항창고를 이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대리점 담당자 및 공항 관계자 분들은 2024년 01월 08일부터 입고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하기의 주소지로 입고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24년 01월 07일까지 입고되는 화물은 기존 창고로 입고를 부탁드립니다, 공항 현장에서 업무 사항 발생 시, 페사의 공항 관계자분들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공항 사무실 내 전화 번호 및 팩스번호는 이전과 동일하며 하기 참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32-751-4515 / 팩스번호 032-751-4514 / 강리구 소장

페사는 새로 이전하는 개선된 환경 하에서 귀사의 소중한 화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이 하 -

- A. 변경 창고 상호명 : MAX LOGISTICS KOREA
- B. 창고 주소지 :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6 번길 97-87 창고번호 1 번~4 번
- C. 창고 부호 : 부호 생성시 공지 안내
- D. 창고 장치장 코드 : 코드 생성시 공지 안내
- E. 이 전 일 : 2024 년 01 월 08 일 (월)



서울

노선별 안내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미주 LAX/ORD 및 주요 노선 지역(ATL/DFW) BUP 프로그램을 진행

OZ 스케줄 ICN-JFK BUP 운영 및 안정적인 Allocations 확보 운영

OAL 직항을 포함한 다양한 T/S OAL SVC (UA/DL/PO 등)에 대한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서비스 지원

미주 지역 외 주요 캐나다(YYZ/YVR) 및 중남미 (MEX/GRU/BOG/SCL 외) 서비스 진행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JFK	OZ587	2245/0025+1 1505/1645 0040/0210	D2 D5 D1	DIRECT
	UA892	1650/1125	D46	SFO-EWR T/S (TRUCKING)
LAX	OZ284/OZ286 OZ282	2330/1725	D1234567	DIRECT
	UA892	1650/1125	D46	SFO T/S (TRUCKING)
SFO	OZ212	2050/1400	DAILY	DIRECT
	UA892	1650/1125	D46	DIRECT
DFW	OZ242/OZ244	23:00/03:15+1	D1246	DIRECT
	DL026 DL158 DL170	18:40/19:20 10:35/10:55 19:40-18:00	DAILY	ATL T/S DTW T/S MSP T/S
	OZ242/OZ244/OZ248	23:00/22:40	DAILY	DIRECT
ORD	DL026 DL158 DL170	18:40/19:20 10:35/10:55 19:40-18:00	DAILY	ATL T/S DTW T/S MSP T/S
	OZ248	23:00/04:45+1	D357	DIRECT
	DL158 DL170	18:40/19:20 10:35/10:55 19:40-18:00	DAILY	DTW T/S MSP T/S

서울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AX	OZ284/OZ286/OZ282	2330 / 1725	D123456	DIRECT	작업일 17시	안범준 대리 (070-5069-9441)
SFO	OZ212	2050 / 1400	DAILY	DIRECT		
ORD	OZ242/OZ244/OZ248	2300 / 2240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장희원 사원 (070-5096-9101)
ATL	OZ248	2300 / 0445+1	D357	DIRECT		
DFW	OZ242/OZ244	2300 / 0315+1	D1246	DIRECT		
JFK	OZ587	2245 / 0035 +1	D2	DIRECT	작업일 17시	서현주 사원 (070-5096-9342)
	OZ587	1505 / 1645	D5		전일 17시	
	OZ587	0040 / 0210	D1		작업일 17시	

메일: usa@maxlogis.com / 네이트온: maxkorea_airexp@nate.com / TEL: 02-3144-2289

** 국적사를 중심으로 한 운임 안정화에 주력하는 1월 미주 시장 전망

- LAX/ORD/JFK 등 12월 성수기 이후 국적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운임 유지 및 노선 별 운임 인상 계획으로 1월 시장 물동량을 우려하는 시장 분위기와는 다른 항공사 별 운임 정책 전망
- 국적사 주도의 꾸준한 운임 인상 기조는 우려되는 01월 시장 물동량 흐름과 관계없이 항공사 별 높은 Yield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Revenue 관리에 치중하는 01월 시장 분위기 전개
- 01월 07일부터 시작하는 KE LAX/ORD 차터 진행으로 일시적인 공급 증가 및 물량 확보에 대한 경쟁 가속으로 전자담배/이커머스 화물에 대한 운임 하락 및 국내 로컬 화물 운임 하락 견인 개연성 내재

** 항공사의 CBP 업무 안내에 불구하고 중국, 동남아시아 및 한국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마약류 운반 사태의 진행으로 미 세관에 의한 화물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 발생

- 화물기에 선적된 화물의 전체가 장기 보류 되는 등, 화물 처리 보류에 따라 높은 Storage 비용이 발생 등 관계 화물 진행 대리점에게 예외 없는 Penalty 적용
- 미국 CBP/캐나다 CBSA 도착 화물 검색 강화 및 불법 화물 적발 시, 출발지 포워드어 불이익 (구상 청구 및 운송 규제)조치가 적용되기에 정확한 화물 품목 기재 및 신고 절차 필수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유럽 주요 지역(LHR/FRA/VIE/MXP)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진행

OZ 스케줄 및 주요 OAL(QR/TK/LH/CV)을 통한 유럽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이원 구간 서비스 지원

LHR/STN 전자담배 및 VIE에 대한 안정적 스페이스 및 경쟁력 있는 운임 지원

중앙아시아 (ALA/TAS/IST) 지역에 대한 OZ 스케줄 중심의 집중적인 프로로션 진행 중

서울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FRA	FRTR	OZ795/OZ775 OZ793	23:15-10:10+1 02:40-15:00/22:35-11:00+1	화 금 / 수 토 월 / 목	DIRECT
	PAX	OZ541	08:50-14:50	월 수 금 토 일	DIRECT
LHR	FRTR	OZ793	02:40-10:30 / '22:35-06:25+1	월 / 목	STN T/S
	PAX	OZ521	12:25-18:15	월 수 금 토 일	DIRECT
VIE	FRTR	OZ775/OZ789/OZ795 OZ797	23:15-06:35+1	수 토 / 목 / 화 금 일	DIRECT
CDG	PAX	OZ501	1035-1700	월 수 목 금 토 일	DIRECT
MXP	FRTR	OZ789 OZ797	23:15-10:10+1 23:15-10:10+1	목 일	DIRECT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외항사 T/S	QR	QR8983 QR8981	0145-0605	수 금 일 토	DOH T/S *T/TIME: 2~4DAYS
	LH	LH8385 LH8387	02:00-08:00 02:25-08:50	금 월	FRA T/S *T/TIME: 2~4DAYS
	TK	TK6545	04:50-11:35 10:50-16:05	금 일	IST T/S *T/TIME: 2~4DAYS
	CV, C8	CV7223 CV7155 CV7226	07:25-14:20 03:10-11:05 07:30-14:40	목 토 일	ICN-LUX *T/TIME: 2~4DAYS
		C8 8111 C8 7113 C8 7737	04:10-16:00 06:40-18:40 13:35-05:25+1	월 수 일	ICN-MXP *T/TIME: 2~4DAYS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HR/STN	OZ793 (FRT)	0240 / 1030 2235 / 0625+1	D1 D4	DIRECT	토요일 15시 작업당일 17시	박주상 과장 (070-5096-9385) 박설희 대리 (070-5096-9389) 진호연 사원 (070-5096-0003)
FRA	OZ793 (FRT)	0240 / 1500 2235 / 1100 +1	D1 D4	DIRECT	전일 17시	
FRA/VIE	OZ795 (FRT)	2315 / 0635 +1 (VIE) 2315 / 1010 +1 (FRA)	D25	DIRECT	작업당일 17시	
	OZ775 (FRT)	2315 / 0635 +1 (VIE) 2315 / 1010 +1 (FRA)	D36	DIRECT	작업당일 17시	
MXP/VIE	OZ789 (FRT)	2315 / 0635 +1 (VIE) 2315 / 1010 +1 (MXP)	D4	DIRECT	작업당일 17시	

메일 : europa@maxlogis.com / 네이트온 : max_export1@nate.com / TEL : 02-3144-2289

** 유럽 성수기 시즌 진입으로 국적사 및 OAL의 운임 인상

- 국적사 기준으로 한 급속한 운임 인상 및 해외 이원 구간의 선적 물량 급증 여파로 12월 스페이스 부족 여파를 극복하는 01월의 스페이스 개선 상황 기대
- LHR/AMS 등 중심으로 전자담배 및 이커머스 선적 물동량 회복과 함께 기타 중앙아시아 노선 (IST/ALA/TAS)에 대한 항공사 별 물동 확보를 위한 운임과 스페이스 지원 예상
- 높은 운임 인상을 보인 OAL(QR/TK 등)의 01월 시장에 맞는 조정된 운임 인하 상황 하에, 각 항공사 별 화물 유치에 집중하는 영업 경쟁 구도 가속화

서울

**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지속에 따른 운항 안내

-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갈등으로 하기와 같이 관계 항공사 항공 스케줄 사전 검토 요청
- 분쟁 장기화로 ICN-TVL 결항 지속과 이에 따른 TLV 행 관계 화물 선적 제한 지속
운항 이상 무

** LO MAWB 기입 상 내용 중 우크라이나 정보 작성 기재 불가

- LO (폴란드항공)로 진행되는 모든 화물의 MAWB 상에 우크라이나 정보 기입 불가
- 폴란드 역외 회사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행 화물 대행하는 과정에서 화물 처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원활한 선적 처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장기 체납 창고로 문제에 따른 청구가 이슈화 되면서 LO 측에서 MAWB 상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 기재 시 진행 불가

** AY 러시아,벨라루스 착 화물 선적 금지 조치

-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 영향으로 AY를 통한 러시아/벨라루스 행 선적 화물 진행 불가
- MAWB & HAWB 상 CNEE 가 러시아,벨라루스를 포함하여, AWB 상 타 DEST. 이지만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 벨라루스인 경우 선적 진행 불가
- 현지 세관 적발 시, 문제 화물의 SHIP-BACK 및 발생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청구 처리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주요 아시아 노선 (HAN/HKG/PVG)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운영

HKG (면세품/화장품 등)을 포함한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특가 및 스페이스 지원

OZ PVG 및 HKG BUP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임 부분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OZ 직항 이외 주요 OAL (SQ/LJ 등)에 기반하여 SQ 주요 운항 노선 및 LJ (BKK)에 대하여

Hard-Block 진행으로 다양한 노선 서비스 구축 확보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PVG	OZ947	0050 / 0210+	D135	Direct	작업당일 18시	전나연 과장 (070-5096-9366)
	OZ987	0050 / 0205 +1	D24567	Direct	작업당일 18시	전나연 과장 (070-5096-9366)
HAN	OZ933	2200 / 0050 +1	D13	Direct	작업당일 17시	강준환 사원 (070-5096-9869)
	OZ389/OZ387	2355 / 0250 +1	D234567	Direct	작업당일 17시	
HKG	OZ967	2340/ 0235	D2457	Direct	전일 19시	김정은 대리 (070-5096-9384)
	OZ969	2340 / 0235 +1	D25	Direct	작업당일 18시	
	OZ951	2345 / 0720	D256	Direct	작업당일 18시	

서울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PVG	OZ0987 OZ0947 OZ0361 OZ0365 OZ0367	화,목,토,일 0050-0210/수 1600-1720 월 1145-1305/수0050-0210/금 1335-1455 월~금 0905-1005 월~금 1410-1510 월~금 2000-2105	DAILY	DIRECT
HKG	OZ745	1950-2250	DAILY	DIRECT
	OZ969/967	화OZ967(1000-1255) 화목OZ969(2340-0235)+1 수금OZ967(2340-0235)+1	화수목금	DIRECT
	OZ951	(2345-0720)+1	화금토	HAN병합노선
HAN	OZ933 / OZ383 OZ951 / OZ389 OZ933 / OZ387 OZ931 / OZ389 OZ951 / OZ387 OZ953 / OZ389 OZ387	월 22:00-00:50+1 / 23:40-02:30+1 화 23:45-02:35+1 / 23:55-02:50+1 수 22:00-00:50+1 / [목] 00:05-03:00 목 22:00-00:50+1 / [금] 00:15-03:10 금 23:45-02:35+1 / 23:55-02:50+1 토 23:45-07:20+1 / [일] 00:15-03:10 일 23:55-02:50+1	DAILY	DIRECT
NRT	OZ102 OZ106 OZ104 OZ108 OZ194 OZ198	월,화,수,목,금,토,일 0900-1120 월,화,수,목,금,토,일 1550-1815 월,화,수,목,금,토,일 1220-1440 월,화,수,목,금,토,일 1835-2100 화, 0400-0620 수,금 1335-1555/ 일 1535-1800	DAILY	DIRECT
TPE	OZ711 OZ713	09:45-11:30 14:00-15:45	DAILY	DIRECT
	LJ731	09:40-11:30	DAILY	DIRECT

메일: asia@maxlogis.com / 네이트온: maxkorea_airexp@nate.com / TEL: 02-3144-2289

** OZ 12월 중국 화물기 및 여객기 운항 안내

- TSN YNT 01월 17일 이후 1횃기 감편운항 (사유 B767F 정비)
- PVG 운항편 경우 12월과 유사한 전체적으로 출/도착 지연 예상
- 여객기 대부분은 A321 운항 예정이며, OZ361 PVG(B777) OZ301 DLC(A330 A321) 운항

** 7C ICN-NRT 화물기 증편

- 제주항공 화물기 2호기 도입에 따른 추가 스케줄 운항
- 7C9104 ETD/ETA 1620/1845 (D23456-12/20부 증편)

** NH 1월 운항 스케줄 CNXL

- 2024년 신년 여파로 01월 2,3,4,5,9 운휴
- NH8476 ICN-NRT ETD/ETA 1405/1620 D234567 운항 일정

서울

** CX ICN-HKG 비운항

- CX035 01월 첫 주간 비운항 진행에 따른 업무 일정 참조 요 (02/04/06JAN)

** SQ EAW/EAP Code 누락에 따른 Penalty 부과 : 목적지 추가 (11월 01일 출발편 적용 기준)

- EAW/EAP 의무적용지역에 해당하는 코드가 FWB 및 예약상 누락 혹은 불일치 시 KRW 70,000/MAWB Penalty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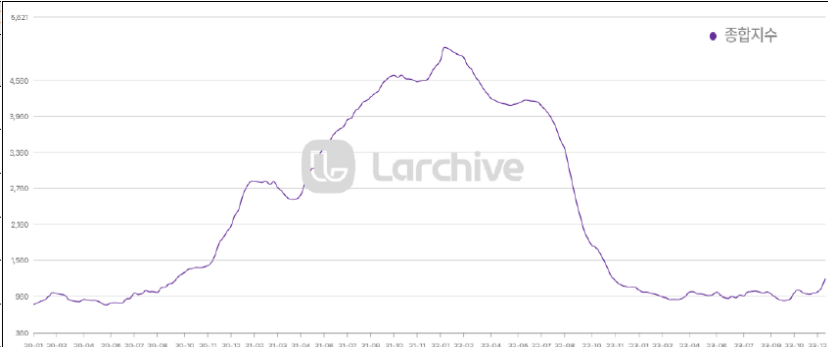
2023년 11월	혼재화물 (CNLS) & 일반화물 (GEN) & ELI/ELM화물	특수화물 (Special Cargo)
지역명	EAW (No AWB, No doc pouch)	EAP (Doc Pouch, No AWB)
동남아 (7)	SIN, KUL, PEN, CGK, SUB, DPS, BKK	
동북아(8)	HKG, NRT, HND, NGO, FUK, KIX, PVG, TPE	
서남아 (5)	BLR, DXB, SHJ, JNB, CPT	
유럽 (14)	AMS, BCN, BRU, CDG, BER, FRA, MUC, ZRH, LHR, MAN, CPH, MXP, FCO, ATH	
미주 (7)	DFW, IAH, EWR, JFK, LAX, SEA, SFO	
대양주 (10)	AKL, CHC, ADL, BNE, MEL, PER, SYD, OOL, CNS, DRW	

부산

■ **해운동향 : 한국 컨테이너선 종합지수 (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 51WK**

√ **홍해사태 이후, 전구간 운임 모두 상승 중, 파나마/수에즈 이슈 관련 운임 급등 추세**

단위: 종합지수(\$/TEU), 미주항로별(\$/FEU), 그 외 항로(\$/TEU)			
항로	51주차(WK) (2023-12-22)	50주차(WK) (2023-12-15)	전주대비 (증감율)
종합지수	1,255	1,094	▲ 14.8%
미주동안	2,982	2,805	▲ 6.4%
미주서안	1,855	1,819	▲ 2.0%
북유럽	1,497	1,029	▲ 45.5%
지중해	2,054	1,569	▲ 31.0%
동남아시아	(업데이트 예정)	202	
중동	1,477	1,175	▲ 25.8%
호주/뉴질랜드	923	916	▲ 0.9%
남미	2,340	2,329	▲ 0.5%
일본동안	(업데이트 예정)	307	
일본서안	(업데이트 예정)	299	
한국	(업데이트 예정)	137	
동부/서부 아프리카	(업데이트 예정)	2,054	
남아공	(업데이트 예정)	1,560	



- SCFI 종합지수는 4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올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함.
- 미주서안은 \$1,855/FEU로 전주대비 2.0% 증가하며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음. 미주동안은 \$2,982/FEU로 전주대비 6.3% 증가했으며, 11월 24일 2316달러 대비 666달러, 28.8% 급증한 수치임.
- 북유럽은 \$1,497/TEU로 전주대비 45.5% 대폭 급증함. 약 11개월 만에 \$1000선을 회복한 이후 2주 연속 \$1000선에 머물렀음. 지중해는 \$2,054/TEU로 전주대비 31.0% 크게 상승하며 5주 연속 우상향을 보임.
- 다만 현재 파나마 운하(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32%) 역시 가뭄에 따른 수위 하락으로 통행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수에즈 운하 통행 제한까지 겹치며 컨테이너 운임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임.
- 친이란 예멘 후퇴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물류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외선들은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하며, 세계 유수 컨테이너선사들의 운임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팬데믹 이후 시황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사, 특히 원양선사들의 운임 시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아시아역내 선사들의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2) **해운동향 이슈**

Red sea 리스크로 인해 운임 급등세

- 대부분 선사들이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을 경유하면서 아시아-유럽항로의 T/time이 약 40% 정도 더 길어지게 됐으며, 물류비도 그만큼 증가함.
- 아시아에서 지중해와 흑해항로 T/time은 약 15~20일, 유럽항로도 15일 이상 길어지게 됐으며, 홍해항로를 통과할 경우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짐.
- 전쟁 위험률은 기존 0.07%에서 0.1~0.2%로 증가했으며, 그만큼 선사들이 부담해야하는 보험요율도 올랐음.
- 아시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운임은 최근 6,000달러/FEU로 급등함.
- 일반적으로 1,000~2,000달러 수준에서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

- 지난 22일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1,255p를 기록함. 특히 유럽항로 운임은 전주대비 1,000달러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 홍해항로 운항을 중단한 선사는 우리나라 HMM을 비롯해 머스크, MSC, CMA CGM, 하팍로이드, ONE, 양명해운, 에버그린 등으로 알려짐.
- 영국 Clarkson Research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세계 컨테이너 선대의 약 74%가 홍해항로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힘.
- 치솟는 운임과 좌초된 상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3년 동안 혼란에 빠진 글로벌 공급망에 위협이 되고 있음. 홍해에서 많은 화물선들이 우회하면서 12월 21일 해상 운임 상한선이 몇 시간 만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CNBC에 따르면, 물류 담당자들은 상하이(중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당 최대 1만 달러의 해상 운임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주(2400달러)보다 317% 상승함. 중동 지역의 화물 운송 요금은 현재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제시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짐.
- 물류회사 OL USA(미국)의 CEO인 알렌 베어는 해운회사들이 선박 전환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상쇄하려고 노력하면서 운임이 급격히 인상되었다고 언급함.
- OL USA CEO는 "특정 무역로에서는 운임이 100~300% 증가했다. 이는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전함.
- Kuehne + Nagel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21일 오전 현재 총 158척의 화물선이 홍해에서 우회하여 210만 개의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했으며 총 가치는 105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화물선은 "체인"으로 세계 해상 항로를 따라 운항한다. 따라서 화물선은 운송 경로의 여러 항구에 기항할 때마다 전 세계의 컨테이너를 "Piggy-bag"함. 따라서 항로 변경으로 인해 화물선이 지연되면 해당 선박에 물품을 싣고 있거나 해당 선박이 컨테이너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화주가 지연을 겪게 됨.
- 미국의 배송업체에는 다양한 배송 경로 옵션이 있지만 유럽의 배송업체에는 이러한 이점이 없음. 유럽으로 화물선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은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운송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임. 따라서 유럽 화주들은 상황을 구하기 위해 항공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 만

1) 지점소식

신년:1월1일 (1DAY)

설날: 2월8일~14일(7DAY)-15일부터 업무 재개예정

2) 물류동향

1) 2024년 상반기 항공 시황 전망 - 항공화물 운임 반등 이후 상승세, 운임상승 분위기
'24년 상반기 항공운임은 '23년 하반기(4분기) 세계 평균 항공운임 및 지역별 항공운임 대비 적게는 5% ~ 10% 운임 인상이 예측되며,
24년 상반기 들어서 추가적으로 +10% 운임 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홍해 지역의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이 확대됨에 따라 홍해를 통한 선적을 중단이따라, 유럽항 항공운임 50% 이상 인상 예측.

2)2024년 상반기 해상 시황 전망

대만발 한국착 해상 운임은 지난해와 비슷한 운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주기적 스케줄 감편을 통해 운임을 안정시켜 운임 인상하고자 하는 현상 지속

예멘 후티 반군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홍해에서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해운사들의 홍해 운송이 잇따라 중단돼 글로벌 물류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만 3대 해운사 YML, WANHAI, EMC홍해 지역 서비스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운임과 보험료 증가, 운송 지연에 따른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우려되고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까지 상승하고 있음.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피한다는 것은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데 약 10~14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

홍해 위기로 일부 노선 운임 폭 100~300% 로 인상될 예정

1) 지점소식

1월1일 신정

2) 물류동향

• 2023년 3분기 화물 처리량 통계

-홍콩 통계부는 2023년 3분기 선박, 항만화물 통계를 발표, 총 항만 화물 처리량은 전년보다 8.2% 감소해 4,530만톤을 기록, 이 중 입항 화물은 5.9% 감소한 2,890만톤, 출항 화물은 11.9% 감소한 1,640만 톤을 기록.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화물 처리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억3,100만톤을 기록, 입항 화물은 8.3% 감소한 8,340톤, 출항 화물은 10.2% 감소한 4,760만톤을 기록

-국가별 항만 화물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28.2%), 일본(-26.1%), 베트남(-22.9%), 미국(-22.9%)등의 항만 화물 선적 톤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호주 출항 화물 톤수는 두 자릿수 증가세(+24.8)를 보였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입항 화물인 경우 베트남(-30.5%), 대만(-27%), 미국(-22.9%), 한국(-21.9%) 감소, 출항 화물인 경우 미국(-34.3%), 대만(-32.3%), 일본(-22.5%), 한국(-20%), 베트남(-19.1%), 말레이시아(-13%) 등으로 감소.

• UPS, 신규 홍콩 국제공항 허브에서 선진화된 운영으로 글로벌 무역 확장



- UPS는 Hong Kong Airport Authority (HKAA)과 홍콩 국제공항과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근처에 20,000 SQM 규모의 첨단 허브를 구축하기로 계약을 체결, 이 허브는 연간 약 1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될 예정이며 유럽, 미국 및 기타 아시아 지역을 오가는 수입, 수출 및 환적 화물을 처리하고 분류하는 UPS Hong Kong의 주요 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증경

1) 지점소식

- 2024년1월 공휴일 12.30-01.01 원단절
- 안정적인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입/수출 및 국내운송 업무제공
- 반도체 생산공장 창고업무 외주 받아 고객과 화물 특성에 따라 Sorting 및 보관 Service 제공
- 다양한 Route 개발과 항공사 전략적 계획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항공운송 서비스 제공
- 충청지점 주요 핸들링 지역
CKG/CTU/WUH/CSX/CGO/XIY

2) 물류동향

- 충청지역 연말출하증가 및 공휴일 향편 취소등 원인으로 스페이스 부족
- 충청발 1월 항공스케줄

YEAR /MONT H	DEPT	항공사	FLT TYPE		DIRE CT / T.S	Route		MON	TUE	WED	THU	FRI	SAT	
			(P/C)	기종		출발지	도착지	FLT. NO.	FLT. NO.	FLT. NO.	FLT. NO.	FLT. NO.	FLT. N	
202401	CKG	CA439	P	B738	D	CKG	ICN	CA439		CA439		CA439		
	CKG	KJ2626	C	B737	D	CKG	ICN			KJ2626				
	CTU	KJ212	C	B737	D	CTU	ICN				KJ212	KJ212	KJ212	
	CGO	KJ252	C	B737	D	CGO	ICN		KJ252				KJ252	
	XIY	KJ2726	C	B737	D	XIY	ICN				KJ2726			
	TFU	OZ0324	P	321	D	TFU	ICN	OZ0324	OZ0324		OZ0324	OZ0324		
	XIY	O37003	C	B767	D	XIY	ICN	O37003						
	XIY	KE812	P	333	D	XIY	ICN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0328	C	77X							KE0328		KE0328	
	XIY	CF201	C	B737	D	XIY	ICN		CF201	CF201	CF201	CF201		
	CKG	CI5998	C	747F	T	CKG	TPE			CI5998			CI5998	
	TPE	CI0160	P	330	T	TPE	ICN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2	P	330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KG	BR0678	C	B77X	T	CKG	TPE				BR0678		BR0678	
		BR0160	P	781	T	CKG	HKG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70	P				321	BR0170	BR0170	BR0170	BR0170	BR0170	BR0170
	CX3261	C	74N								CX3261			
CKG	CX3265	C	74Y	T	CKG	HKG		CX3265			CX3265			
	CX945	C	320							CX945				

하노이

1) 지점소식

- 항공 계약사 7C 및 OZ 직계약 운영 중
7C 12월 14일부터 기존 데일리 1대화물기에서 2호기 투입.
- 내년 창고 운영 계획 관련 하노이 공항 근처 및 하이퐁포트 근처 창고수배 및 견학
- 내년 글로벌비즈 해상, 항공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확정, 항공운임은 타켓요율을 최대한 맞춰서 1분기 진행예정.

2) 물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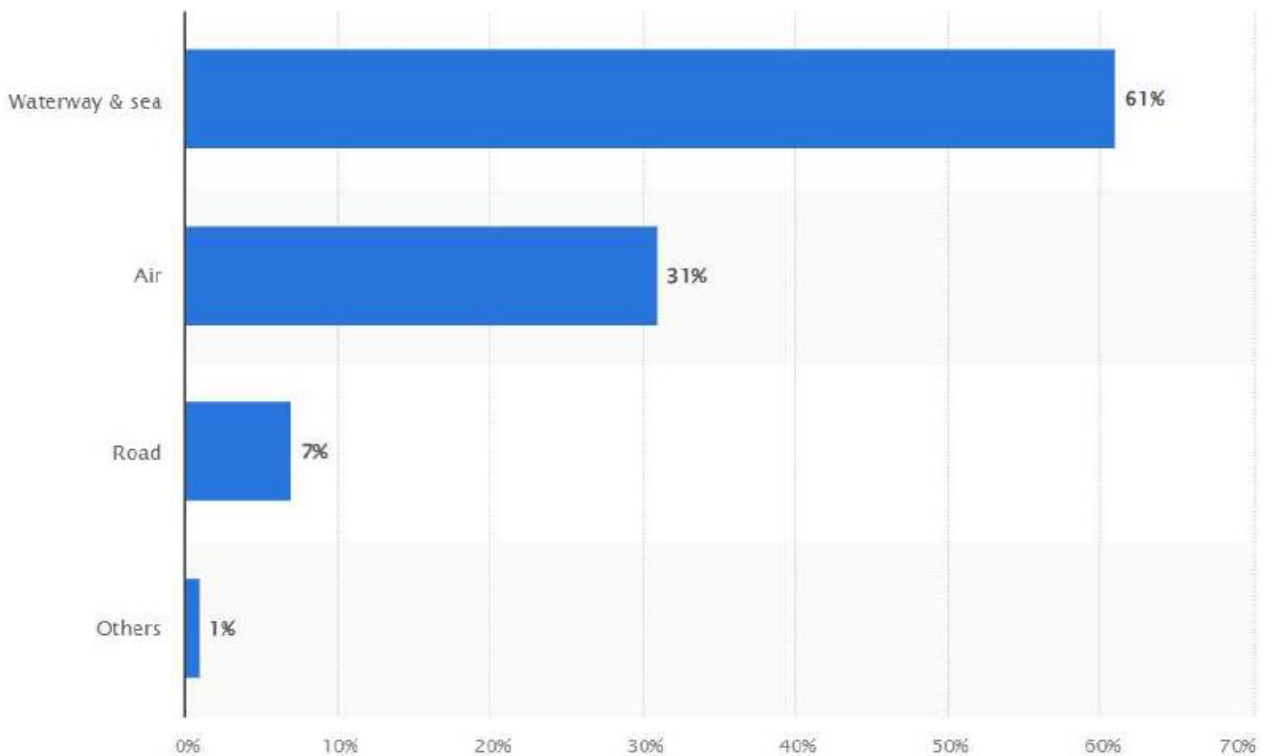
- 지난 몇 년과 달리 항공 연말 특수가 전혀 없는상황.
- 항공 하노이발 미주 및 유럽항은 운임 상승중. 한국경유지에서 스페이스가 타이트한 것으로 예상.
- 해상 운임은 한국항 및 제 3국항등 낮은요율로 진행중. 스페이스 충분한 상황.

1) 물류동향

베트남 해상 물류 동향

베트남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수출입 물류의 원활함이 경제에 중용하게 작용한다. 특히 해상물류는 베트남 수출입 운송 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의 혼란이 베트남 물류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스탯리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수출입 운송수단 중 해상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로 가장 높았다. 이에 글로벌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면 베트남의 경제와 무역 활동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수출입 운송 수단별 점유율 / 단위: %>



[자료: 스탯리스타(Statista)]

호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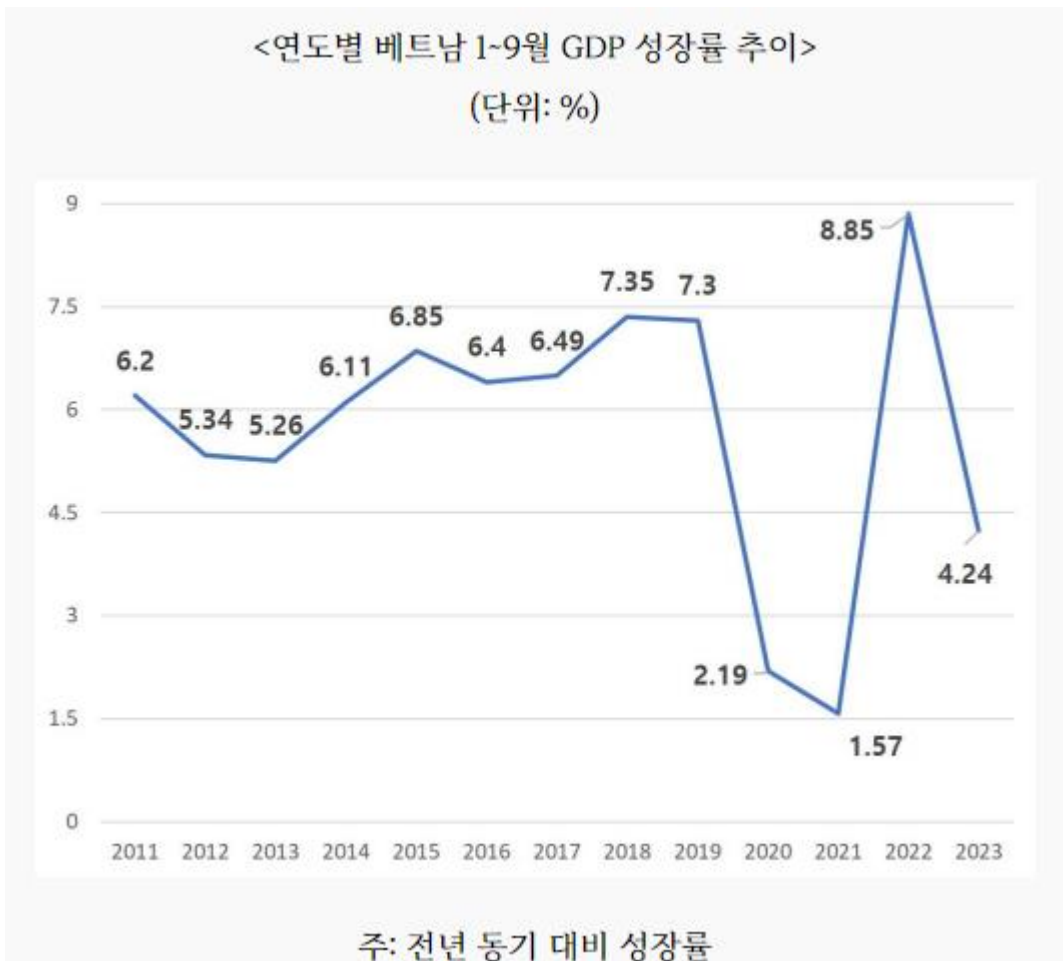
수에즈, 파나마 운하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로존으로 통하는 주요 해상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면 베트남의 수출입 물량뿐 아니라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글로벌 물류 차질 상황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른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원자재 수급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업체들에서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시를 대비해 대체 원부자재 공급선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했다.

베트남 내 우리 기업의 납기, 물류비용 상승과 원부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속적인 글로벌 물류 차질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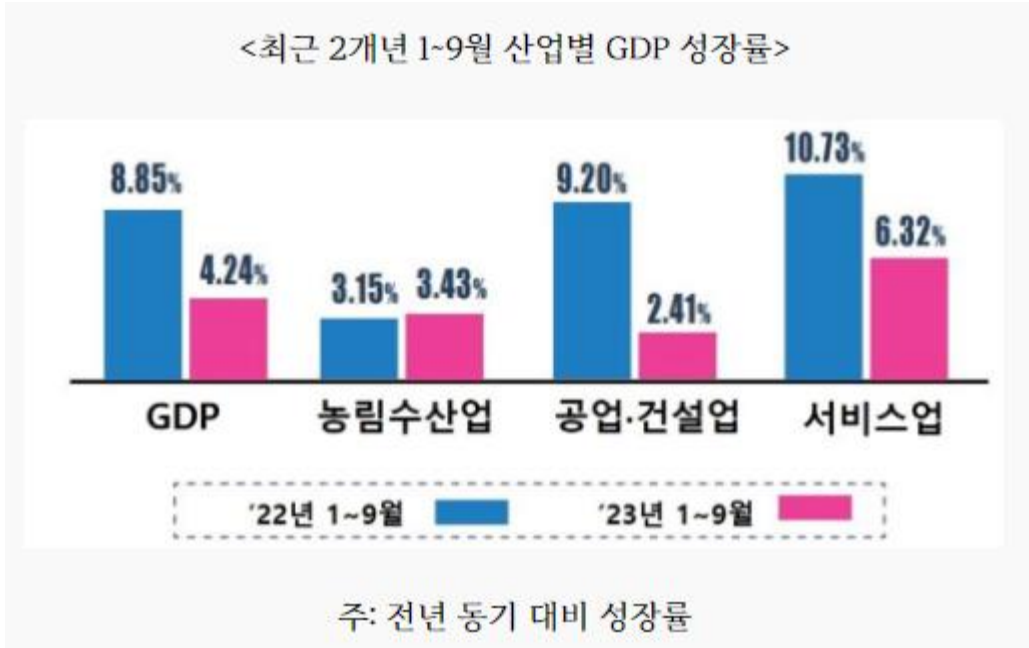
베트남 경기

베트남의 23년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5.33%로 2분기(4.05%)보다 높으나 코로나19기간(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다.



호치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농림수산업은 3.43% 성장하며 산업 부문 중 유일하게 22년도의 3.15%의 성장률을 뛰어 넘었으나 공업/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은 전년 대비 2.41% 및 6.32% 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일부 회복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으며, GSO에 따르면 23년도 9월까지 기준 22년도 대비 신설 법인 수는 3.1% 증가 하였지만, 자본금 규모는 오히려 14.6% 감소, 고용 창출은 1.2% 감소함에 따라 질적은 증가로는 볼 수 없다. 올해 9개월 동안 휴업한 법인은 동년 대비 23.3% 증가했고, 전년 대비 감소한 4.3% 사가 폐업 했다. 현재 법인 해산 혹은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휴업법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수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호치민

3분기 경제 통계 발표 이후 베트남 정부는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기관별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DB	IMF	Standard Chartered	OECD	평균
총진 (발표 시 기)	6.5 (‘23년 4 월)	4.7 (‘23년 4 월)	7.2 (‘23년 3월)	6.5 (‘23년 4월)	6.2
조정 후 (발표 시 기)	5.8 (‘23년 7 월)	4.7 (‘23년 9 월)	5.4 (‘23년 9월)	-	5.3

<기관별 2024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Fitch Ratings	평균
전망 치 (발 표 시 기)	6.0 (‘23. 9.)	5.8 (‘23. 10.)	6.6 (‘2 3. 4.)	5.5 (‘23. 8.)	6.7 (‘23. 1.)	6.3 (‘23. 11.)	6.15

주: 전년대비 GDP 성장률, 베트남 정부 목표치: 6.0~6.5%(‘23년 11월 발표)

1) 물류 동향

1. 美물가 우려에 유가 3.8% 급락...WTI 5개월만에 최저치
- 12일(현지시간)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음
2. "OPEC 또박또박 받아쓰기"...기후총회 초안에 비판·우려 폭발
- 산유국 UAE 의장말은 COP28 최종합의 어그러질 위기
3. 파나마운하 수심 제한에 컨선사들 할증료 부과 대응
- 운항비용 상승에 MSC·CMA CGM·코스코등 할증료 도입
4. 덴마크 머스크, 3년간 7000억 이상 들여 동남아 물류사업강화
- 덴마크 머스크는 3년간 5억달러(약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동남아시아 내 물류사업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음
- 머스크는 2026년까지 약 48만㎡(약 14만5000평)의 창고 능력을 추가하고, 해운·터미널 부문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함
- 세계적인 생산·소비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통합(Integrator) 전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
5. 아시아-유럽 관문 막혀...후티 반군 공격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
- 홍해의 핵심 해로인 수에즈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로, 전 세계 해운 운송량의 약 15%를 담당함
-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편도 거리는 6500km, 운송기일은 최대 10일가량 길어짐
- 글로벌 주요 선사 9곳이 홍해 항로 이용 중단 선언...연말 물류 대란 위기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인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증가하면서
- 예멘 반군공격에 HMM도 수에즈운하 아닌 희망봉 돌아 유럽간다
6. 2024년 글로벌 해운동맹 지각변동 예고
* 디 얼라이언스, 내년 4월 노선 개편...오션 얼라이언스도 변경 예정
* 결별·사업 다각화 등 생존 경쟁 돌입하는 해운동맹

2) 경제 동향

1. '유럽판 IRA' 혜택 대상에 원전기술 포함될듯...곧 최종협상
 -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NZIA 입법을 추진 중
 - 이 법을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게 EU의 목표
 - 이 법이 시행되면 역내 신규 사업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한편 공공조달 입찰 시 제3국 부품 의존도를 따지게 됨
 - '메이드 인 유럽' 제품·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유럽판 IRA'로 불림
2.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5.25%로 동결...3연속 고정
 - * 14차 연속 인상 후 올 9월부터 동결...15년래 최고치
3. EU, 우크라이나 'EU 가입협상' 개시 확정...헝가리 기권에 합의성사
 - 이날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로선 작년 6월 EU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지 약 1년 6개월 만에 'EU 울타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됨
 - 물론 가입 협상이 정식으로 개시되더라도 실제 회원국 합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큼
4. EU 유로7 잠정합의...타이어·브레이크 먼지 배출기준 도입
 - 이번 협상을 이끈 알렉산드르 폰드라 유럽의회 의원은 "우리는 환경보호와 제조사의 생존이 걸린 이해관계 사이에 균형을 찾았다"면서 "이들 규정으로 자동차산업은 업계의 대전환에 대비하고 새로운 차의 가격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응 對미 보복관세 2025년 3월까지 유예
 - U, 독일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 위한 26억 유로 보조금 승인

이 태 리

1) 물류 동향

- 대부분 공장들이 연말연시 2주간 휴가 실시 (2023.12.25 ~ 2024.1.7)
- 트럭킹 회사들도 2주간 대부분 휴가 실시중이어서, 일부 독차 서비스가 가능하며 밀라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트럭킹 서비스에 제한
- 연휴가 끝나는 1월8일부터 정상적인 operation 가능

이탈리아발 국적사 항공 스케줄

- 대한항공 화물기 D1편이 12월 비운항이었는데, 24년1월부터 재개 (주3회에서 주4회로 공급 증가)
- 연휴기간인 1월3일 대한항공 화물기 비운항

항공사	구분	노선	Mon	Tue	Wed	Thu	Fri	Sat	Sun	기종
KE	화물기	MXP/ICN			KE9576 2020/1550+1		KE9576 2020/1550+1		KE9576 2020/1550+1	777-F
			KE9518 2250/1815+1					KE514 2325/1855+1 (747-8F)	777-F	
	여객기	MXP/ICN			KE928 2005/1530+1		KE928 2005/1530+1		KE928 2005/1530+1	B789
			FCO/ICN	KE932 2145/1700+1	KE932 2145/1700+1		KE932 2145/1700+1		KE932 2145/1700+1	B777-300
OZ	화물기	MXP/ICN	OZ798 1210/0740+1				OZ790 1210/0740+1			747-400F
	여객기	FCO/ICN		OZ562 2030/1354+1	OZ562 2030/1354+1	OZ562 2030/1354+1		OZ562 2030/1354+1	OZ562 2030/1354+1	A350-900

수에즈 운하 항로 기피 선박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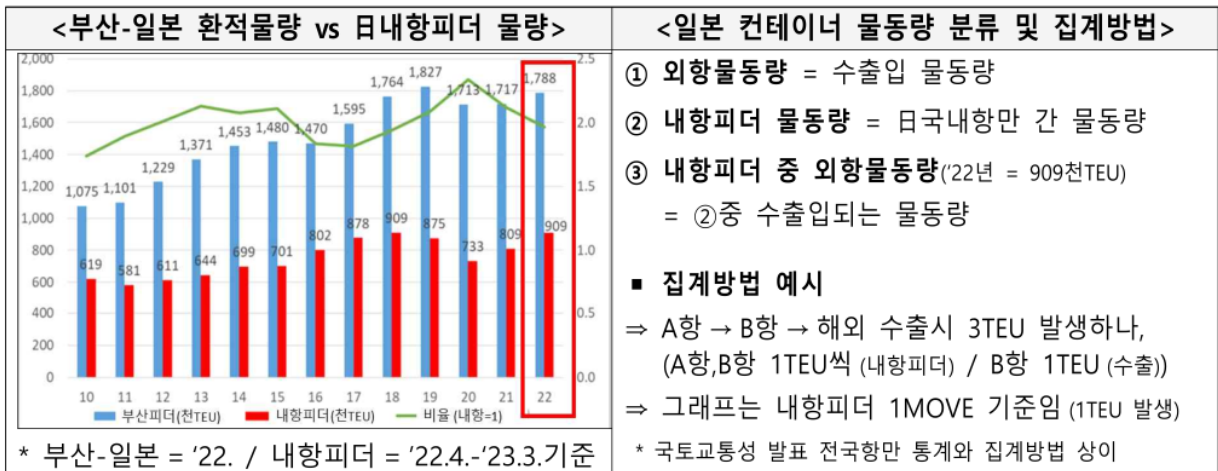
- 현재까지 299척의 선박이 희망봉으로 항로를 변경했거나 계획중이며, 이는 전주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선박용량의 18%에 해당
-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 (Maersk)는 가능한 한 빨리 홍해 운송을 재개할 준비를 발표했으나, 정확한 재개 날짜는 미정
- 대부분의 선사가 2024.1.1부로 Contingency Adjustment Charge (CAC) 부과 : 선사마다 상이하나 대략 20피트 기준 500달러, 40피트 기준 1000달러 수준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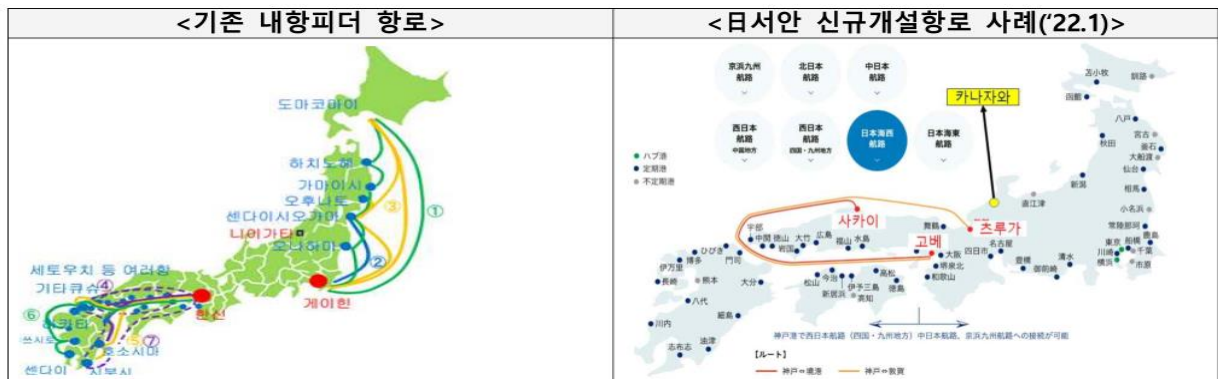
1) 물류 동향

2022년 일본 내항피더 물동량, 12% 증가한 91만TEU, 한일항로 물동량과 격차 좁혀

□ 내항해운조합총연합회, 2022년 내항선에 의한 피더 컨테이너 수송조사 결과 공표
 - 22년(22.4.-23.3.) 내항선에 의한 피더 컨테이너의 수송량은, 전년대비 12%증가한 909,004TEU로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18년도와 동일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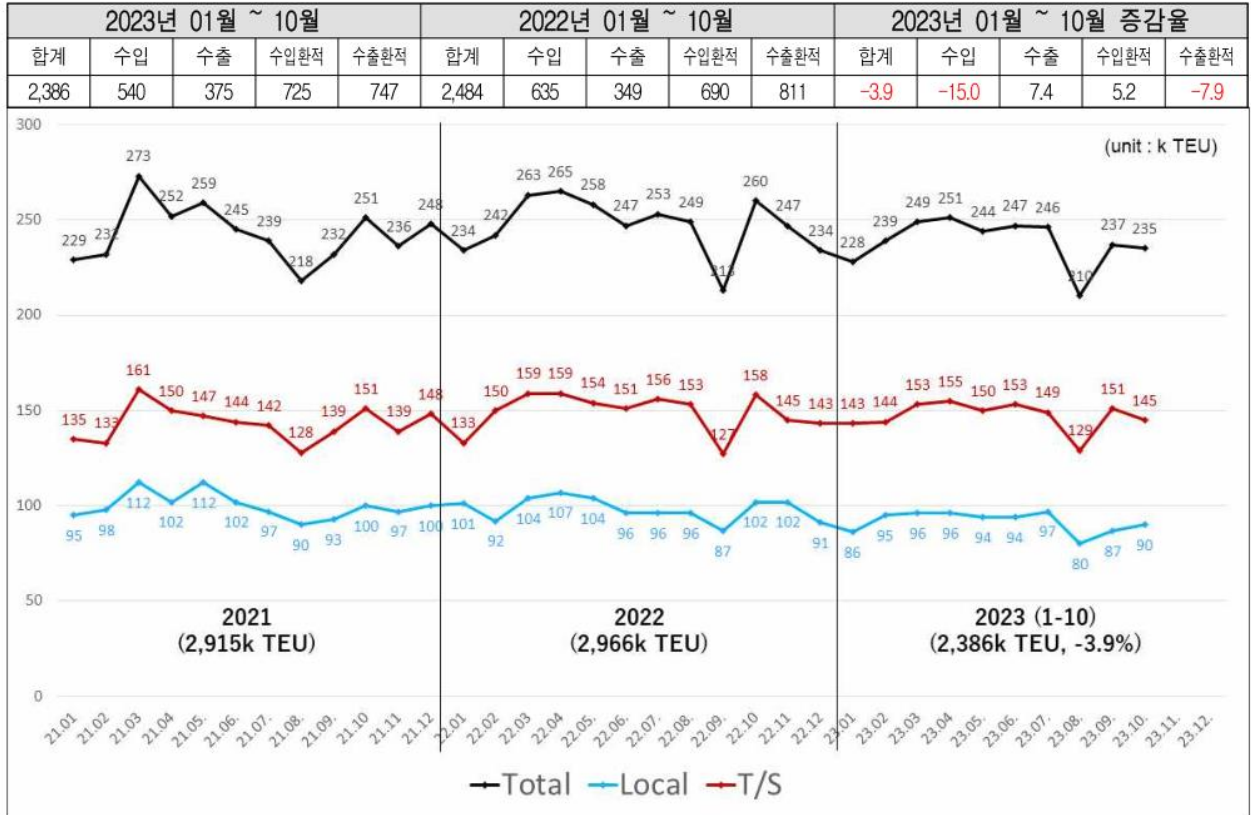
□ 내항피더 물동량 증가 주요인으로 부산항 혼잡 회피 및 팬데믹 이후 자동차 생산량 회복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내항피더는 '22년 최초로 日서안에 항로를 투입, 수출입을 개시 중
 - 22년(1~12월) 부산-일본 환적물량은 1,788천TEU로 전년 대비 4.2% 증가, 내항피더와의 물동량 차이는 1.97배로 전년도에 이어 축소됨
 - 적'컨은 13% 증가한 58만1,687TEU. 공'컨은 11% 증가한 32만7,317TEU 기록



일본

- (부산-일본 물동량) 2,386천TEU 처리 (3.9% ↑)
- 수출입 915천TEU (7.0% ↓) / 환적 1,472천TEU (1.9% ↓)

단위 : 천TEU



1) 지점소식

• 태국 지점 휴일 안내

- 12/29 - 01/02 새해 연휴

2) 물류 동향

• 태국-캄보디아-중국 철도 운송 사업 추진



- Global Multimodal Logistics Company (GML), SCGJWD Logistics Company, 그리고 Pan-Asia Silk Road Company (PAS)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화물사업 운영 및 발전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짐.
- 각 회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사업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함.
- 이번 협약을 통해 동남아시아 전 지역을 아우를 거대한 노선으로 확대할 준비가 되었음을 발표하며 태국 교통체계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음.

2) 물류 동향

• 2024년 태국 수출 프로세스,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성장 기대

- 'Navigating Global Trade and Logistics 2024' 세미나가 개최됨. 이번 세미나에서 수출 사업은 국제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임을 크게 강조하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24년 수출 사업의 생존 방법으로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함.

-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송 방식 선택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시장 개척 및 새 고객사 영입
- 신제품 개발

• 스마트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PAT'의 도약



- Port Authority of Thailand (PAT)의 항만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선박을 통한 운송 상황은 물류 및 전자 상거래 측면에서 상당히 성장했다고 밝힘.

- 전자 상거래,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입과 같은 선박을 이용한 자동차 운송은 태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

- PAT는 편리하고 신속한 항만 관리를 위해 AI 시스템을 도입함. 램차방 항구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개발 완료 후에 총 1,8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2) 물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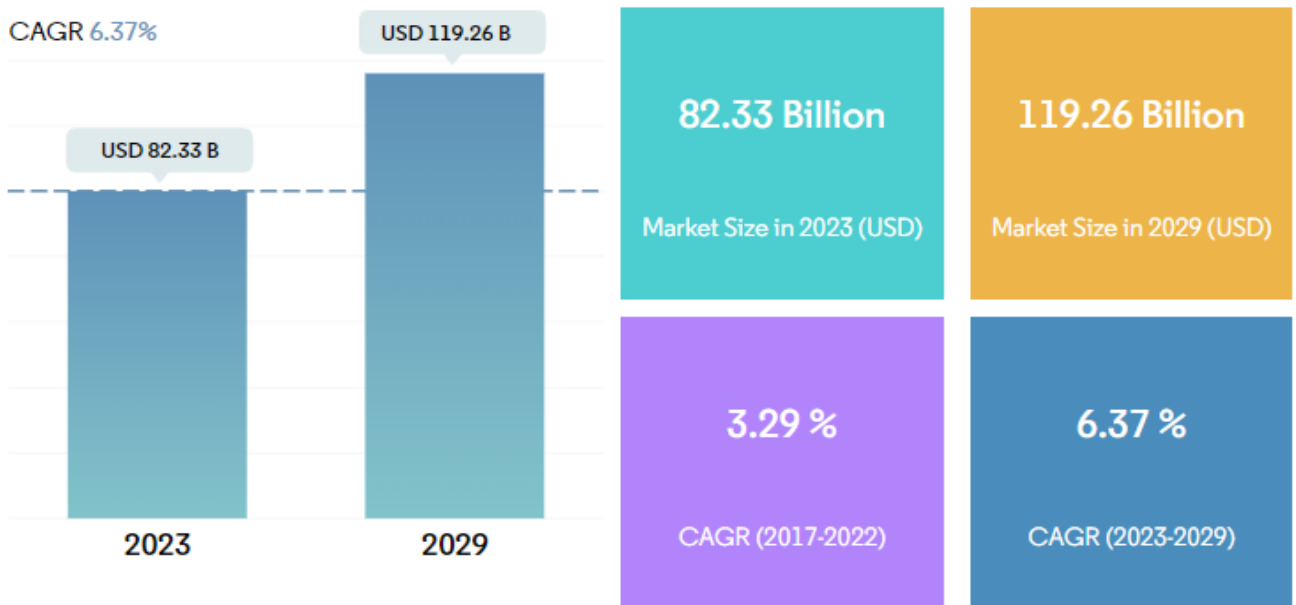
• 2029년까지의 태국 물류 시장 규모 및 점유율 분석

- 태국 상무부 무역정책전략실에 따르면 태국의 물류 부문은 서비스 부문에서 4번째로 크며, 2021년 상반기 경제 생산량은 약 112억 달러(GDP의 5%)에 이릅니다.
- 태국은 교통 및 물류 발전에 급속히 속도를 내며 아세안의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태국 화물 및 물류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6%씩 성장할 것으로 보임.

Thailand Freight and Logistics Market

Market Size in USD Billion

CAGR 6.37%



Source : Mordor Intelligence

